

典籍의 刊行頻度로 본 壬亂以前 地方文化事情의 分析的 考察

— 특히 攷事撮要 冊板目錄을 中心으로 —

金 致 雨 ★

內 容

- | | |
|--------------------|------------------|
| I. 緒 論 | IV. 地方文化의 主題別 分析 |
| II. 朝鮮朝 地方板 典籍의 種類 | V. 地方文化의 地域別 分析 |
| III. 板主問題 | VI. 結 論 |

I. 緒 論

現下 國學의 研究는 中央文化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地方文化에 관한 것은 거의 疏外되고 있는 實情인데 특히 壬亂以前에 있어서가 더욱 그러하다. 이는 中央文化에 관한 것은 資料가 多様하여 接近하기 쉬운 반면 地方文化에 관한 것은 資料가 貧困하여 接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라볼 國學의 研究는 中央文化와 地方文化에 關한 것이 從橫으로 同時에 이루어져야만 보다 完全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地方文化에 대한 資料의 開發 및 分析檢討이다. 現在 壬亂以前 地方文化를 檢討 研究할 수 있는 劃期的인 典籍資料는 攷事撮要의 八道程途內에 收錄되어 있는 冊板目錄 뿐이다. 그곳에는 千餘種에 달하는 冊板이 收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確認된 壬亂以前 京外 圖書의 全部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國學研究에 있어서 資料가 貧困하여 거의 疏外되고 있는 壬亂以前 地方文化事情을 攷事撮要 冊板目錄을 通해서 分析的으로 考察하여 國學研究에 다 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하고자 하는 바이다.

現在까지 壬亂以前 地方文化事情에 관한 分析的인 研究는 없었으며, 다만 몇몇 書誌學者나 史學者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된 資料인 攷事撮要 冊板目錄을 區分 紹介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¹⁾ 그리다가 年前 筆者에 의해서 그 冊板目錄에 관한 諸敍

★ 釜山女子 專門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1) 李仁榮, “攷事撮要의 冊板目錄について” 東洋學報, Vol. 30 No. 2, 昭和18.5(1943.5) pp. 31-56.
釋尾春仍, 朝鮮古書目錄, 京城, 明治 44(1911) 245p. 24cm.
三木榮, 朝鮮書誌, 孔版本, 大阪, 昭和 31(1956) 4. 42, 477, 27p. 圖版 20張, 26cm.
以外에도 더 있음.

書誌事項을 復原시키고 分類를 밝히 놓았다.⁽²⁾

그러므로 本稿는 더 나아가 그 分類를 體系化시켜서 地方文化事情을 分析的으로 檢討한 것이므로 그것의 後篇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I. 朝鮮朝 地方板 典籍의 種類

文化發展의 母體는 典籍이 으뜸이다. 그러므로 地方文化發展의 事情을 알기 위해서는 優先 地方에서 刊行된 圖書의 板主를 區分하여 봄이 좋을 것이다.

李朝時 典籍文化는 板主에 따라 官板本, 寺刹本, 書院本, 私刻本 및 坊刻本 등으로 區分되고 있다.⁽³⁾ 이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官板本

官板本은 文字 그대로 官廳에서 刊行한 圖書를 말한다.

地方官署의 官板本은 地方文化 發展에 있어서 中樞의인 役割을 했음은 再言할 여지가 없다. 寺刹本, 書院本, 私刻本 및 坊刻本 등도 地方文化 發展에 기여한 功勞는 많으나, 그것은 어느 特定한 分野에 관한 것이 大部分이므로 一般大衆에게 두루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고 또한 刊行量 많지 못하였으므로 地方官板本에는 도저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먼저 地方官署에 있어서 圖書의 刊行 經緯를 살펴보면 自意에 의한 것과 他意에 의한 것으로 大別된다.

自意에 의한 것이란 當該 地方官署에서 獨自的으로 發刊한 것이며, 他意에 의한 것이란 中央官置의 下命에 의해서 發刊한 것이다. 中央官署에서는 全國的으로 普及할 많은 圖書를 刊行할 수가 없으므로 地方官署에 必要한 冊의 原本을 下送하거나 또는 下送하지 않고 刊行케 하였다.

地方官署에서 圖書를 刊行할 때는 그 機關自體의 人的 物的 資源만 가지고 하는 경우와 다시 그 下部 機關에 命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하여 刊行한 圖書의 yak간은 中央으로 上送하기도 하나 대개는 地方境內人에게 分給하여서⁽⁴⁾ 地方文化發展을 가져 오게 하였던 것이다.

中央에서 圖書를 刊行한 機關은 春坊, 校書館, 司譯院, 奎章閣, 內醫院 및 六曹等이지만 그 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은 校書館이다. 그곳은 國家에서 必要로 하는 圖書의 刊行을 맡은 官廳으로 京師의 板主까지 겸하여 一部는 宣明로 一部는 納紙印行等으

(2) 拙著, 故事提要의 書誌的 研究. 1972年度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 前開恭作, 朝鮮의 板本. 福臨, 松浦書店, 昭和12(1937) pp. 22—44.

(4) 明宗實錄, 卷 10, 5年庚戌 11月 己亥條.

「…己亥 以黃疸瘧疾治療方 下于政院曰 見此方文 治法簡要 各道州府郡縣僉使萬戶處 己命 依舊印頒矣 然 窮村落卷人 不得偏觀 令監司及州府巨邑 印給境內人民 則其於治療之方 多有裨益矣…」라는 記錄을 보면 알 수 있다.

로 李朝 前期에 있어서 書籍流通을 이루웠으나 時形的인 方法이기 때문에 一般의 書籍供給은 充足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中宗朝부터 組織的인 書籍流通 方法이 要求되어 書肆의 開設에 대한 論議가 나와서⁽⁵⁾ 드디어 明宗 6年(1551)에 書肆가 設立 運營되었다.⁽⁶⁾

2. 寺刹本

寺刹에서는 信者의 布施에 의하여 많은 佛教關係 書籍과 아울러 納紙를 하고 一般의 書籍도 刊行하였다. 信者의 布施에 의하여 寺刹에서 佛書를 刊行한 것은 羅代以後이다.

특히 寺刹本은 佛教를 國教로 삼았던 高麗時代에 크게 盛行했을 것으로 믿어지나 殘存하는 實物은 아주 稀貴한 反面, 排佛崇儒主義를 國是로 삼았던 李朝前 各地方 寺刹에서 刊行된 佛書가 상당수에 達한다. 現在 確認된 壬亂以前 各地方 寺刹에서 刊行된 佛書도 많이 殘存하고 있다. 壬亂以前에 刊行된 圖書로 刊地와 刊年이 分明한 것으로 佛書가 제일 많지 않나 생각된다.

壬亂以前 中央에서 佛書를 主로 刊行하던 機關은 刊經圖監이다. 刊經圖監에서 刊行한 佛書는 各地方의 寺刹에서 많이 覆刻 또는 重刊되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3. 書院本

書院에서는 그 書院의 主享者나 配享者의 遺稿를 刊行하였다. 書院에서 書籍의 出版은 李朝後期에 屢번하였으나 壬亂以前에 있어서도 약간 있었다.⁽⁷⁾

書院의 嚆矢는 豊基郡守 周世鵬이 中宗38年(1543)에 安珣 獎學의 遺風을 欣慕하여 세운 白雲洞書院이다. 그러므로 壬亂以前에 있어서 書院에서는 書籍을 刊行한 時間的 餘裕가 많지 못하였으므로 現存하는 그 當時의 書院本은 별로 없다.

4. 私家本

私家에서는 家門을 빛내기 위해서 自己 祖上의 詩文을 모아 工匠을 고용하여 書籍을 刊行하였다. 私家에서 文集을 刊行하는데도 是非가 있어서 여러가지 自製가 있었다. 그것은 芝峰類說에

(5) 中央實錄, 卷36, 14年 7月 甲午條.
 中宗實錄, 卷44, 17年 3月 辛亥條.
 中宗實錄, 卷44, 17年 3月 癸丑條.
 中宗實錄, 卷65, 24年 5月 己未條.
 中宗實錄, 卷75, 28年 6月 戊子條.
 中宗實錄, 卷87, 33年 3月 甲申條.

(6) 明宗實錄, 卷11, 6年 5月 甲申條.
 拙稿, “우리나라에 있어서 書肆의 起源에 關한 研究”, 도서관, Vol.28 No.6, 1973. 6. pp.63—69.

「…中朝人所爲文章輒即刊布 蓋出於好事 而前朝李奎報 本朝徐居正 姜希孟及其生時亦印行于世云…」

한 기록과 秋江冷話에

「…姜菊鴻景醇編晉山世稿與金參判壽寧點抹增損以快人目揚父祖詩名於後世 人以此爲孝 余則以爲不孝 辛上舍永禧家有其祖文禧公詩集 人有言子之家集可以印行乎 辛曰我祖雖有能文名而家集所載一可傳者 嘗有挽一門生詩曰 三十二而卒下幸同顏回 此句之外無佳詩 豈可刊行也 人爲此爲不孝 予則以爲孝也 何者直述祖父之行藝是乃孝道 假使巧言飾筆以譽父母 父母之心寧無愧於冥冥之中乎…」

라 한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私家本の 起原은 확실히 알 수 없다. 現在 確認된 最古의 私刻本은 高麗 恭愍王 19年(1370) 晋陽(晋州)에서 刊行한 近思錄集解이다.⁽⁸⁾

私刻本은 상당한 文閥을 가진 祖上과 豊富な 財力을 지니한 家門이 아니던 刊行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地方文化發展의 一助가 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5. 坊刻本

坊刻本이란 院外 販賣를 目的으로 刊行한 冊이다.

現在 確認된 最古의 坊刻本은 宣朝 9年(1576)에 刊行 乙亥字本覆刻版 攷事撮要이다.⁽⁹⁾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坊刻本은 壬亂以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坊刻本은 書肆가 開設 運營되고 나서 流行되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렇다면 坊刻本의 出現과 書肆의 起源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書肆의 起源에 關해서는 中宗 14年說, 同王 17年說, 明宗 6年說 및 純祖 29—30年說 등이 있었으나 筆者는 이미 明宗 6年說을 거듭 主張한 바 있다.⁽¹⁰⁾ 그것은 明宗實錄, 卷 11, 6年 5月 甲申條에

「…書肆之法 臣等非初創而爲之也 在中宗已立法 而廢不行 故只欲申明而已…書肆申明之事 請勿留難…」

이란 기록에 이어, 明宗이 上啓에 대하여

「…書肆申明之事請勿留難答曰如啓」

라 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勿論 그 以前에도 書肆의 設立에 關한 記錄이 몇군데 나타나 있으나 明宗 6年에 다

(7)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9, p.22

(8) 朱源·呂祖謙, 近思錄集解, 葉榮集解, 本版本, 卷末에 「星山李氏刊晉陽」 「洪武三年(1370)」 「李魯權」이란 記錄에 의해서 그것이 私刻本임을 알 수 있다.

(9) 拙著, 前揭書, p.6.

(10) 註 6 參照.

시 그에 관한 記錄이 있는 것을 보면 그 以前 記錄에 관한 것은 實施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明宗 6년에 書肆가 設立 運營되었다는 證據는 그로부터 不過 3年後인 同王 9년에 編刊된 官版 攷事撮要에⁽¹¹⁾ 冊價가 明示된 書冊市準이 收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明宗 6年以後 同王 9年以前에 다른 書肆의 論議가 있었으며 官撰書의 攷事撮要에 冊價가 明示된 書冊市準이 收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明宗 6년에 書肆가 設立 運營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明宗 6년에 書肆가 設立 運營되므로 인해서 이미 壬亂以前에 坊刻本이 出現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出現의 時期로 보아 그 當時의 地方文化 發展에 크게 寄與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Ⅲ. 板主問題

前記한 바와 같이 板主에 따라 地方文化를 發展시킨 典籍을 官板本, 寺刹本, 書院本, 私家本 및 坊刻本으로 區分하여 보았으나 實物의 未傳과 記錄의 不備로 그 때 刊行된 圖書의 實態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當時의 地方文化事情을 分析 檢討하자면 優先 圖書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는 일이나 그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壬亂以前 各地方에서 開板된 圖書를 989種이나 收錄하고 있는 攷事撮要 冊板目錄을 通해서 板主問題와 그 分類를 밝히시 壬亂以前 各地方文化事情을 究明하여 보고자 한다. 勿論 이것에 의해서 地方文化事情을 考察한다는 것은 다소 不合理的한 점이 없지 않으나 現在로서는 이 以上の 資料가 없으니가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면 우선 攷事撮要란 어떠한 冊인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였다.

攷事撮要是 李朝 明宗 9年(1554) 也足堂 魚叔權이 撰한 一種의 類書이다. 이곳은 原撰以後 英祖 47(1771) 徐命膺에 의하여 攷事新書로 大幅 改訂增補된 바에 12次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루어졌다.⁽¹²⁾ 本書에는 李朝社會에 있어서 鄉黨과 宗室은 물론 巷屋의 生活에 이르기까지 應당 알아두어야 했던 事大交隣을 위시한 日常生活에 必要不可缺한 一般常識 따위가 收錄되어 있으므로 당시 社會事情을 아는데 적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만 그 중 冊板目錄만이 書誌研究의 貴重한 資料로 評價되고 있을 뿐이다.

冊板目錄은 壬亂以前 刊本에는 모두 收錄되어 있다.

明宗 9年의 魚叔權 原撰本은 일찍이 湮沒되어 자세한 內容은 알 수 없으나 後刊本에 있는 그의 序文에 의해서 本書가 그 때 刊行된 것은 確實視되며, 壬亂以前 諸刊本의 內容 및 體裁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여기에도 冊板目錄이 收錄되어 있다는 것은

(11) 李朝 明宗 9年(1554)의 魚叔權 原撰本은 일찍이 湮沒되어 接見할 수 없으나, 續撰4에 붙어 있는 그의 序文에 의해서 그것이 그 때 刊行된 것을 알 수 있음.

(12) 拙著, 前掲書, p. 1.

넉넉히 짐작이 된다.

그 다음 刊本인 宣祖 1年(1568)刊 乙亥字本에는 558種의 冊板目錄이 收錄되어 있다. 刊年은 大明紀年이 隆慶 2年(1568)까지 收錄되어 있고, 本朝忌辰에는 明宗이 있으며 生日에는 宣祖 2년에 王妃로 冊封된 懿仁王后가 없는 점으로 보아 宣祖 1年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刊行된 宣祖 9年(1576)刊 乙亥字本에는 559種의 冊板目錄이 收錄되어 있다. 刊年은 大明紀年이 萬曆 4年(1576)으로 그치고 本朝忌辰에는 宣祖 8년에 昇遐한 明宗妃 仁順王后의 忌辰이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宣祖 9년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宣祖 9年(1576)에 刊行된 乙亥字本覆刻本에는 560種의 冊板目錄이 收錄되어 있다. 本書는 宣祖 1年刊의 乙亥字本을 覆刻하고 몇군데 追刻하여 刊行한 것이다. 刊年은 本朝忌辰의 마지막 上端界線을 없애고 宣祖 8년에 昇遐한 明宗妃 仁順王后의 忌辰이 正月初二日이라고 小字로 追刻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水標橋下北邊二第里門入河漢水家刻板買者辨來」란 刊記가 있으므로 宣祖 9년에 刊行된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冊板目錄이 最後로 收錄되어 있는 宣祖 18年(1585)刊 木板本에는 그것이 989種이나 收錄되었다. 刊年은 大明紀年에 나타난 바와 같이 宣祖 18년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忌辰에는 宣祖 10년에 昇遐한 仁宗妃 仁聖王后가 있고 生日에는 同王 25년에 世子로 冊封된 東宮, 即 後日의 光海君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本書는 宣祖 10年以後이고, 同王 25年 以前인 宣祖 18년에 刊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以上 諸版 攷事撮要의 冊板 增加 事項을 地域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地 域	冊 本	宣祖 2年 乙亥字本	宣祖 9年 乙亥字本	宣祖 9年 乙亥覆刻	宣祖 18年 木 板 本
京 畿 道		2	2	2	2
水 原		2	2	2	2
忠 清 道		37	37	37	37
忠 州		3	3	3	3
清 州		16	16	16	16
公 州		5	5	5	5
洪 州		7	7	7	7
提 川		2	2	2	2
林川(寶光寺)		2	2	2	2
韓 山		2	2	2	2
黃 海 道		24	24	25(+1)	77(+52)

	延海	安州	13	13	14(+1)	10
	瑞興(歸真寺)					50(+36)
	遂谷	安山	4	4	4	3
	鳳黃	山州	6	6	6	4
						6
						3
			1	1	1	1
江	原道		61	61	61	61
	春川		7	7	7	7
	橫城		1	1	1	1
	原州		23	23	23	23
	淮陽		6	6	6	6
	寧越		2	2	2	2
	旌善		8	8	8	8
	襄陽		5	5	5	5
	江陵		3	3	3	3
	三陟		4	4	4	4
	平海		2	2	2	2
全	羅道		167	167	167	338(+171)
	高益	山山	1	1	1	2(+1)
	錦臨	山山				1(+1)
	全沃	陂州	16	16	16	29(+13)
	金溝	溝	36	36	36	2(+2)
	金提	潭	2	2	2	67(+31)
	龍泰	仁	3	3	3	2
	鎮安	安				1(+1)
	扶井	邑	2	2	2	1(+1)
	古阜	敝	1	1	1	8(+6)
	高長	城	3	3	3	2(+1)
	茂長	長	3	3	3	3
			1	1	1	3
						1
						1(+1)
						1(+1)
			5	5	5	13(+8)

	南	原	19	19	19	38(+13)
	成	平	1	1	1	2(+1)
	長	水				1(+1)
	淳	昌	3	3	3	7(+4)
	珍	京				1(+1)
	谷	城	1	1	1	1
	雲	峰	2	2	2	2
	靈	光	1	1	1	1
	玉	果	1	1	1	2(+1)
	潭	陽	3	3	3	9(+3)
	求	禮	1	1	1	5(+4)
	光	州	15	15	15	32(+17)
	羅	州	18	18	18	28(+10)
	昌	平	2	2	2	2
	綾	城	2	2	2	12(+10)
	南	平	3	3	3	3
	同	福	3	3	3	3
	務	安	2	2	2	2
	遠	巖	1	1	1	2(+1)
	寶	城	4	4	4	6(+2)
	順	天	6	6	6	24(+18)
	光	陽	2	2	2	2
	長	興	5	5	5	9(+4)
	樂	安				1(+1)
	海	南				1(+1)
	濟	州				2(+2)
壘	高	道	222	222	223(+1)	388(+165)
	豐	基	3	3	3	6(+3)
	尚	州	17	17	17	25(+8)
	榮	川	6	6	6	15(+9)
	醴	泉	6	6	6	7(+1)
	安	東	21	21	21	27(+6)
	善	山	10	10	10	11(+1)
	比	安	1	1	1	1
	金	山	1	1	1	1
	開	寧	1	1	1	2(+1)
	義	城	9	9	9	16(+7)

	書	1	1	1	2(+2)
	知	9	9	9	2(-1)
	義	5	5	5	1(+1)
	星	5	5	5	25(-16)
	咸	6	6	6	6(-1)
	大	8	8	8	9(-4)
	高	1	1	1	1(+1)
	永	3	3	3	20(+14)
	寧	8	8	8	2(+2)
	清	1	1	1	10(+2)
	盈	3	3	3	5(+5)
	玄	7	7	7	1
	草	1	1	1	4(+1)
	陝	3	3	3	9(+2)
	安	1	1	1	1
	昌	1	1	1	1
	慶	43	43	43	61(+18)
	密	14	14	51(+1)	23(+8)
	漆	2	2	2	1(+1)
	宜	2	2	2	2
	山	2	2	2	3(+1)
	昌	4	4	4	5(+1)
	威	2	2	2	2
	晉	25	25	25	50(+25)
	金	2	2	2	6(+4)
	蔚				1(+1)
	梁				2(+2)
	昆	3	3	3	6(+3)
	固	2	2	2	5(+3)
	河	1	1	1	4(+3)
	泗				1(+1)
	南				3(+3)
	巨				3(+3)
平	安	32	33(+1)	32(-1)	67(+34)
	中	5	5	5	9(+4)
	平	27	28(+1)	27(-1)	55(+27)
	祥				1(+1)

	咸 從					2(+2)
咸	鏡 道	13	13	13	13	19(+3)
	安 邊	4	4	4	4	4
	咸 興	8	8	8	8	8
	洪 原	1	1	1	1	1
	會 寧					6(+6)
總	計	558	559(+1)	560(+2, -1)		989(+428)

上記 表와 같이 宣祖 18年 木板本에서 428種이 새로 增加되었는데 이는 宣祖 9年以後에 開板된 冊板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以前 諸板本에서 빠진 것과 그 以後에 開板된 것을 아울러 收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本 攷事撮要 冊板目錄의 板主를 밝히지 壬亂以前 地方文化를 發展시킨 典籍은 어떠한 것이 있나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곳에는 林川 寶光寺의 孟子 大文 및 大學大文, 瑞興 歸眞寺의 十九史略, 童子習 및 龍龕手鏡, 그리고 羅州 鄉校의 禮輯, 自省錄, 溪山雜詠, 孝經, 錦南集, 岳飛書, 月軒集 및 屏風書以外에는 板主가 明示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의 歸屬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다만 다른 文獻에 의해서 類推하는 수밖에 없다.

이름대면 三陟冊板中 證道歌가 있는데 이것은 成宗 5年(1474) 三陟 三和寺에서 開板된 것이다. 本 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仁眞珠治西 三和吉利 禪師志雲 幸得此書本 不月開刊 以壽其傳...成化甲午(1474) 七月日 行三陟都護府使 黃允充謹跋이라는 記錄이 있다. 그러면서도 三和寺라 區分하여 收錄하지 않고 다른 冊板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各板主의 冊板이 混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東京雜記 書籍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곳에는 攷事撮要의 慶州冊板이 大部分 收錄되어 있고 府藏冊板, 鄉校所藏板, 西岳書院所藏板 및 淨惠寺所藏 등으로 所藏處가 區分되어 있다.⁽¹³⁾ 이것에 의하면 攷事撮要 冊板目錄에는 거의 板主가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地方官署, 鄉校, 書院 및 寺刹 등이 冊板의 板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攷

(13) 閔周冕, 東京雜記, 木板本, 肅宗37(1771)卷, 書籍條:(府藏冊板) 自警篇 活人心方 尚書詠吐 尚書 胡傳春秋 中庸 大學 莊子筆談 備齋叢話 西陽雜俎 歷代世年歌 吏學指南 無咎錄 講學律 通村詩 北景八景詩 不自棄文 宋楊輝算法 九成宮書 拯急道方 三國遺事 益齋亂髮表詩 窮珍方 朱子詩集 百里指南 草書千字 元六典大全 孝經 性理大全 唐高 帝王韻記 時享圖 聯珠詩格 小全大明律 略韻 冠婚喪制儀 十抄詩 南嶽唱酬 醫眼方 救荒撮要 三國史 庸學指南 兩山墨談 偏先錄 皇明名臣言行錄 春種 出攷事撮要冠不明 論語 孟子 抄馬史 朱子行狀 心經 兵學指南 舟溪撮要 破閑集 補閑集 東人詩話 義之書帖 萬竹山房集帖 韓石峯書 趙孟頫所書赤壁賦及浣花體 東坡筆述 晦菴所書孝悌忠信禮義廉恥與夜寐大字 崔孤雲所書廣濟品大字 金生所書太極院大字 黃孤山所書靜遠動直大字 磨崖碑 百勝抄解 童蒙先習 千字文 ○鄉校所藏板 忠孝堂三大字 ○西岳書院所藏板 西岳誌 歷年通考 崔孤雲所書溪石門四大字 ○淨惠寺所藏板 晦菴文集 九經衍義 求仁錄 大學補遺 奉先雜儀 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訣及元朝五箴 金南恂, 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 益齋集 樞齋釋說 抄漢書 孝行錄 梅月堂四遊錄 太極圖書 韓護所書赤壁賦。

事撮要가 官板본인만큼 이곳에 收錄된 冊板은 대개가 官板冊板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地方文化를 發展시키는데 많은 役割을 한 冊籍은 官板本임을 알 수 있다.

Ⅳ. 地方文化의 主題別 分析

그러면 壬亂以前 冊板目錄이 集大成되어 있는 宣祖 18年 木板本 攷事撮要의 冊板目錄에 의거해서 各地方 文化事情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優先 이것을 傳統分類法인 經史子集의 四部法에 의해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經 部(217)

易類10, 書類10, 詩類10, 禮類10, 禮類雜禮16, 春秋類10, 孝經類17, 總經類2, 四書類大學17, 四書類中庸19, 四書類論語9, 四書類孟子10, 小學類字書11, 小學類韻書21, 小學類蒙求書45.

史 部(117)

正史類12, 編年類9, 別史類9, 雜史類5, 詔令奏議2, 傳記類30, 傳記類系譜8, 地理類10, 職官類2, 職官類官箴1, 政書類5, 政書類通制3, 政書類律令16, 金石類3, 史表類1, 史評類1.

子 部(394)

儒家類137, 兵家類19, 農家類18, 醫家類73, 天文算法類算書2, 術數類2, 藝術類113, 隨錄類7, 類書類2, 小說類8, 譯家類3, 道家類6.

集 部(242)

別集類154, 總集類79, 詞曲類7, 功令類2.

未 詳(19)

以上과 같이 部別로는 子部가 가장 많고 이어서 集部, 經部, 史部の 順으로 刊行되었다.

子部가 가장 많은 것은 그것이 地方의 社會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中에서도 특히 儒家類, 藝術類, 醫家類, 兵家類 및 農家類 등이 많은데 이것은 中央은 물론 地方의 社會生活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는 圖書들이다.

儒家類는 京師나 京外를 막론하고 모든 선비들에게 必要한 圖書이므로 京外에서도 自然 많이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李朝는 排佛崇儒主義를 根本이 되는 國是로 삼았으므로 이에 관한 圖書가 많음은 당연한 歸結인 것이다. 太祖가 李朝를 建國하고나서 儒敎를 崇尚한 것은 創業에 功이 많은 臣下들이 대개 佛敎를 排斥하던 麗末의 儒臣들이었으므로 太祖는 그들의 主義主張에 의하여 佛敎를 누른 것이다. 그것은 佛敎를 國是로 삼았던 高麗의 舊臣들을 排斥하고 新進勢力을 包攝하기 위해서 취해진 不可避한 일이었다.

藝術類가 많은 것은 그 當時 書寫手段이 毛筆이었으므로 書道作品이 많았기 때문이

다.

醫家類에 관한 圖書는 醫術이 發達되자 못한 그 當時에 切實히 記載한 것이었다. 疴病이 아니더라도 한번 發生하면 그 많은 生命을 빼앗아 가는 疾苦이므로 이를 預防하는 方法을 알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圖書가 많이 刊行된 것 밖에 疑義가 없으므로 생각된다. 그것은 錦山에서 刊行된 治腫秘方의 序文에

「…余於今春巡過井邑 求得遺方 乃其所撰治腫法也 人雖云亡 此方一出 世之學者 亦可因方 以來其妙 獨恨諸病治方未載也 遂囑錦山郡守李君愷祥 發者梓以廣其傳 庶使 人人得免天札 而同躋仁壽之域耳 嘉靖三十八年己未正月下泮 嘉善大夫金輝道觀察 使兼兵馬水軍節度使安璋序」

라 한 記錄에 의해서도 이를 살필 수 있다.

兵家類는 戰爭이 빈번하던 때였으므로 이에 관한 圖書가 많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特別히 兵家類에 관한 도서는 戰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社會進身을 위해서도 必要한 冊이었다.

農家類에 관한 도서는 農業을 重視하던 때였으므로 많이 刊行되었다. 李穡의 國是는 農本主義를 標榜하고 있음만 봐도 넉넉히 짐작된다. 그 때 一般的인 職業觀念은 士農工商이라 하여 선비 다음으로 農業을 중히 여겼다. 그러나 技術의 不足으로 收穫 量은 많지 아니했으므로 朝廷에서는 이를 打開하기 위해서 農書를 地方官署에 命하여 刊行에 하였다. 世宗實錄, 卷40, 10年戊申閏 4月 13日條에

「…傳旨漢尚道監司咸吉平安兩道 地品好而無知之民 泥於舊習 農事墮隳未盡地方 欲採可行良法 使其傳習道內 耕種耘穫之法 五穀土性所宜及雜穀交種之方 訪之老農 撮要成冊 以進 且農書一千部 以國庫米豆 換紙印進…」

라는 記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刊行된 冊은 다시 諺解하여 八道에 印分하였다. 11) 及事撮要 冊板目錄中 淮陽, 全州, 溇陽, 安東, 晉州 및 平壤의 農書는 거의 이 中宗朝版을 覆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子部에는 이 외에도 天文算法類算書, 術數類, 隨錄類, 類書類, 小說類, 譯家類, 釋家類, 道家類 등에 관한 圖書가 34種이 收錄되어 있다.

子部 다음으로 集部에 관한 도서가 많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中國 漢文學의 影響을 받아서 詩文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魏文帝⁽¹⁵⁾는

「…文章 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 年壽 有時而盡 榮辱 止乎其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 是以 古之作者 寄身於翰墨 見意於篇籍 不假良史之辭 不託飛馳之勢 而聲名 自傳於後…」

라 한 정도로 文은 崇尚하였다. 이러한 思想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傳來되어 많은

(14)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乙巳條.

(15) 曹操의 長子로 著書에 典論五卷과 文集 列異傳 등이 있으며 詩文에 뛰어남을.

文集이 發刊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經部에 관한 圖書는 그 當時의 社會與件으로 보아 많이 刊行된 편은 아니다. 經部에서는 小學類의 蒙求書와 韻書가 많다.

蒙求書와 韻書는 學門의 入門書로 반드시 必要한 冊이기 때문에 많이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四書類의 中庸과 大學이 많이 刊行되었다. 이는 經書中 特別 四書類에 관한 것을 重視하였기 때문이다.

圖書가 제일 적은 것이 史部이다. 이것은 地方文化의 特色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史部에 관한 圖書는 一般大衆生活과 距離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地方版圖書에는 自然 史部에 관한 것이 적게 刊行된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은 中央의 圖書刊行과 相反되는 現象이다. 史部에서 10種 이상 刊行된 것은 傳記類, 律令, 正史類, 地理類에 관한 것 뿐이다. 이와같이 史部에 관한 圖書가 적은 것은 그것이 大衆生活과 連關性이 적은 反面 爲政者들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中央에서 刊行된 圖書에 史部가 아주 많음을 보면 알 수 있다.

V. 地方文化의 地域別 分析

이번에는 前記한 典籍을 各地域別로 區分하여 그 地方文化事情을 分析 檢討하여 보기로 하겠다.

먼저 典籍의 刊行件數를 道別로 보면 前記한 表와 같이 慶尙道가 388種으로 단연 優位를 點하고 있으며, 다음이 全羅道로 338種이고, 이어서 黃海道 77種, 平安道 57種, 江原道 61種, 忠淸道 37種, 咸鏡道 19種의 順이며, 가장 적은 곳이 京畿道로 2種이다. 이와같이 道別로는 慶尙, 全羅兩道에서, 刊行된 典籍이 726種으로 他道에서 刊行된 263種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數字이다. 이는 慶尙道와 全羅道가 壬亂以前에 있어서 政治, 經濟 및 社會의 面에서 他道에 비하여 우수하였으며 많은 人材를 輩出하였다는 證據이다.

圖書의 刊行과 文化水準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即 文化水準이 높은 곳일수록 圖書刊行이 頻繁하다는 것이다. 政事撮要 冊板目錄에 의하면 壬亂以前에 있어서는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平安道, 江原道, 忠淸道, 咸鏡道, 京畿道 順으로 圖書가 刊行되었는데, 이 中 黃海道, 忠淸道 및 京畿道를 除外하면 文化水準도 거의 이와 같은 次序로 나타 나고 있다.

文化發展의 主要因은 再言할 餘地없이 많은 人材를 輩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當時의 人材輩出은 거의 科擧試驗을 通해서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어느 地方 사관이 얼마만큼 及弟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地方文化水準의 尺度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及弟者의 姓名, 生歿年 및 緣故地 등을 정확히 알 수

었으므로, 而亂以前에 있어서各地域別及弟者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그런데 本朝에서는 便宜上 李朝初期에 科擧及弟者의 地域割當數를 살펴서 그 地方에서 輩出한 人材數를 엿볼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國情의 履行程度와 비교하여 그 地方文化事情을 分析 檢討하여 보기로 하였다.

먼저 李朝初期에 있어서 人材發用의 方法인 科擧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科擧에 의하여 人材를 發用하는 方法은 第一段階인 小科初試로부터 始作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制度는 世宗 20年(1438)에 비로소 實施된 것이며 太祖朝로부터 太宗朝에 이르기까지는 文武科擧에 있어 3段階의 方法 即 初試 覆試 殿試의 試驗에 의하여 合格者가 決定되었다. 太宗時의 初試 地域別割當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6)

地	城	太 宗 初	太 宗 17 年
館	試	30名	50名
漢	城	30	40
江	原	15	10
黃	海	15	10
忠	淸	20	20
慶	尙	30	30
全	羅	20	20
平	安	10	10
咸	鏡	10	10

그 후 科擧制가 整備된 世宗時에 있어서 5段階의 方法이 採擇되었는데 第1段階의 初試는 漢城府 및 道에서 觀察使의 主宰下에 施行하도록 되었고 이 때의 合格者數를 다음과 같이 地域別로 割當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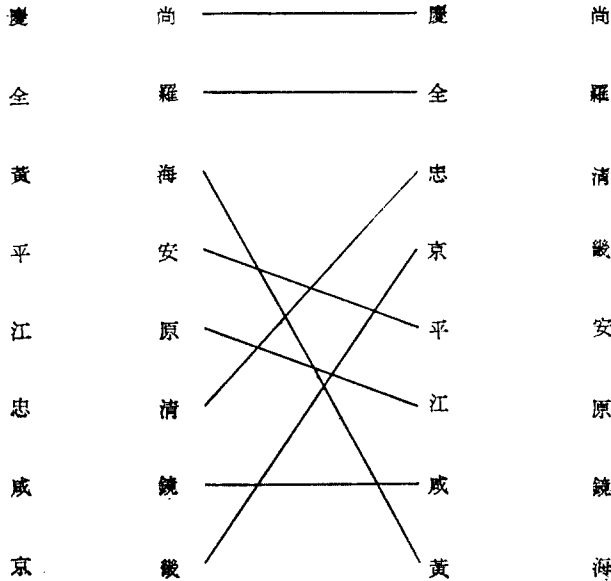
地	城	文科初試	大科初試	武 科	文科增廣
館	試		50		
漢	城	200	40	70	80
京	畿	60	20		32
忠	淸	90	25	25	40
全	羅	90	25	25	40
慶	尙	100	30	30	48
江	原	45	15	10	24
平	安	45	15	10	24
黃	海	35	10	10	16
咸	鏡	35	10	10	16

(16) 太宗實錄, 卷33, 17年 閏5月條.

이 表中 文科增廣試의 地域割當數와 故事摘要 冊板目錄의 開板地를 비교하여 보면 圖書刊行이 많은 곳이 人材輩出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冊板目錄〉

〈地域割當數〉



이와같이 黃海道, 忠清道, 京畿道를 제외한 나머지 道는 圖書刊行數와 科擧及弟者 地域割當數가 거의 一致하고 있다. 그 3個道에서 刊行된 圖書는 116種으로 약 全體刊行圖書 989種의 10分之 1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一致되지 않더라도 特記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圖書刊行數와 科擧及弟者 地域割當數가 一致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많은 人材를 輩出した 곳 卽 文化水準이 높은 곳이 圖書刊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各道에 있어서 圖書의 主要開板地와 그 分類(經史子集)를 究明하여서 壬亂以前 各地域의 文化事情이 어떠한가 考察하여 보자.

먼저 圖書刊行이 가장 많은 慶尙道부터 살펴 보면, 이곳에서 刊行된 圖書는 都合 388種으로 50種以上 刊行된 곳이 2個處, 10~49種 刊行된 곳이 9個處, 1~9種 刊行된 곳이 32個處로 圖書가 刊行된 곳이 43個處이다. 特히 10種以上の 圖書가 刊行된 慶州, 晉州, 安東, 尙州, 星州, 密陽 등은 慶尙道文化의 꽃을 피운 곳으로 많은 人材가

출된 곳이다. 그런데 監營이 있던 大丘(大邱)에서 刊行된 圖書은 9種으로 他道の 監營에 비하여 不振한 편이다.

이 388種의 圖書을 分類하면

經部(78)

易類4, 書類4, 詩類4, 禮類4, 禮類雜禮8, 春秋類5, 孝經類6, 總經類2, 四書類大學3, 四書類中庸6, 四書類論語2, 四書類孟子4, 小學類字書2, 小學類韻書4, 小學類蒙求書20.

史部(50)

正史類2, 編年類6, 別史類3, 雜史類1, 詔令奏議類1, 傳記類13, 傳記類係譜5, 地理類6, 職官類2, 政書類2, 政書類通制2, 政書類律令6, 史評類1,

子部(148)

儒家類50, 兵家類7, 農家類7, 醫家類25, 天文算法類算書1, 術數類1, 藝術類46, 隨錄類4, 小說類5, 釋家類1, 道家類1.

集部(105)

別集類68, 總集類32, 詞曲類3, 功令類2.

未詳(7)

이와같이 分類別로는 子部가 가장 많고 이어서 集部, 經部, 史部の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로 圖書刊行이 많은 곳은 全羅道로서 都合 338種의 圖書가 刊行되었다. 여기에서 50種以上 刊行된 곳은 全州 1個處이고, 10~49種 刊行된 곳은 7個處, 1~9種 刊行된 곳이 35個處이다. 全州은 監營이 있었던 곳으로 67種의 圖書가 刊行되었는데, 이는 壬亂以前 地方中 圖書刊行이 제일 많았던 곳이다. 이외에 南原, 光州, 錦山, 羅州, 順天, 茂長, 綾城 등도 全羅道 文化發展에 많이 寄與한 곳으로 圖書刊行이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錦山郡守는 學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發令났던 곳으로 有名한 書籍들이 많이 刊行되었다. 一例로 李朝最初의 金屬活字인 癸未字로 印出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란 冊이 覆刻 刊行되기도 하였다.⁽¹⁷⁾ 全羅道는 慶尚道와 같이 圖書가 刊行된 곳이 43個處이지만 全體數에 있어서는 50餘種이 모자란다. 單一地域으로 圖書刊行이 제일 많던 全州가 있으면서도 이와같은 差異가 나는 것을 보면 全羅道 各地域間의 文化發展差度가 慶尚道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刊行된 338種의 圖書을 分類하면

經部(71)

易類3, 書類2, 詩類2, 禮類6, 禮類雜禮4, 春秋類3, 孝經類6, 四書類大學6, 四書類中庸4, 四書類論語4, 四書類孟子2, 小學類字書4, 小學類韻書9, 小學類蒙

(17) 林堯叟.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癸未字本覆刻. 錦山, 端宗 2 (1454)
卷末: 「…我太宗大王朝 所印鑄字本字大便於觀覽 而印少歲久 學者病未得焉 癸西夏 上令集賢殿 版一帙 刊其訛誤 遂命全羅觀察使臣金連枝 錄梓于錦山郡…景泰庚申(1454) 夏六月日…李埴奉教 敬跋」

求書16.
 史部(34)
 正史類3, 編年類2, 別史類2, 雜史類3, 詔令奏議類1, 傳記類10, 傳記類係譜3,
 地理類3, 政書類1, 政書類通制1, 政書類律令4, 金石類1.
 子部(143)
 儒家類55, 兵家類5, 農家類6, 醫家類30, 術數類1, 藝術類37, 隨錄類2, 類書
 類1, 小說類2, 譯家類1, 釋家類1, 道家類2.
 集部(81)
 別集類53, 總集類25, 詞曲類3.
 未詳(9)

로 역시 子部가 가장 많고 이어서 集部, 經部, 史部の 順이다.

黃海道는 八道中 圖書刊行이 3번째로 많은 곳이다. 海州를 비롯한 7個處에서 都合
 77種의 圖書가 刊行되었는데 그 중 50種이 海州에서 刊行되었다. 이와같이 黃海道는
 經濟的인 면이나 社會的인 면에서 忠清道나 京畿道보다 發達이 뒤진 곳이지만 圖書刊
 行은 매우 활발하였다. 이곳은 圖書刊行과 文化發展의 程度가 一致하지 않는 곳의 하
 나이다.

그때 刊行된 黃海道の 圖書를 分類하면

經部(23)

 易類1, 書類2, 詩類2, 禮類雜禮1, 孝經1, 四書類大學3, 四書類中庸4, 四書類
 論語1, 四書類孟子1, 小學類字書3, 小學類韻書1, 小學類蒙求書3.

史部(12)

 正史類4, 別史類1, 傳記類4, 地理類1, 政書類1, 政書類律令1.

子部(30)

 金石類2, 儒家類8, 兵家類2, 醫家類3, 藝術類15.

集部(12)

 別集類8, 總集類4.

로 많은 人材를 輩出한 慶尙道나 全羅道는 儒家類의 圖書가 제일 많아져 儒教의 政治
 理念에 符合되는 文化가 發達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곳 黃海道는 儒家類의 圖書
 가 藝術에 뒤지고 있음을 보면 당시 社會事情에 符合되는 文化의 形成地가 아님을
 示唆하고 있다.

平安道는 비번째로 圖書刊行이 많은 곳으로 4個處에서 都合 67種의 圖書가 刊行되
 었다. 이 중 55種의 圖書가 平壤에서 刊行되었으니, 그곳의 높은 文化水準을 짐작하
 고도 남음이 있다.

平安道の 圖書를 分類別로 살펴 보면

經部(20)

 易類2, 書類2, 詩類2, 禮類雜禮1, 春秋類2, 孝經類1, 四書類大學1, 四書類中

庸2, 四書類孟子1, 小學類韻書3, 小學類蒙求書3.
史部(6)

正史類3, 編年類1, 別史類1, 傳記類1.
子部(29)

儒家類8, 兵家類1, 農家類2, 醫家類4, 藝術類11, 譯家類2, 釋家類1.
集部(11)

別集類3, 總集類7, 詞曲類1.
未詳(1)

로 慶尙道나 全羅道와는 달리 集部보다 經部가 많다.

다섯번째로 圖書가 刊行된 江原에 있어서는 10個處에서 都合 61種의 圖書가 刊行되었다. 그 중 原州에서 23種이 刊行되고 나머지 9個處는 모두 10種 미만이다. 이것을 보면 江原道는 自古로 文化發達이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61種의 圖書를 分類하면

經部(9)

禮類雜禮1, 孝經類2, 四書類大學1, 四書類中庸1, 四書類論語1, 四書類孟子1,
小學類字書1, 小學類蒙求書1.

史部(9)

別史類1, 傳記類2, 職官類官箴1, 政書類1, 政書類律令3, 史表類1.

子部(28)

儒家類8, 兵家類1, 農家類3, 醫家類6, 天文算法類算書1, 藝術類4, 隨錄類1,
小說類1, 釋家類1, 道家類2.

集部(13)

別集類10, 總集類3.

未詳(2)

로 他道와 비슷한 內容의 圖書이다.

여섯번째로 圖書刊行이 나타난 곳은 忠淸道로 淸州를 비롯한 7個處에서 都合 37種의 圖書가 刊行되었다. 많은 人材를 輩出한 곳이지만 圖書의 刊行은 매우 貧困하다. 이는 京師와 隣接한 關係로 애써 圖書를 刊行하지 않아도 必要한 冊을 쉽게 구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 刊行된 圖書를 分類하면

經部(5)

四書類大學2, 四書類中庸1, 四書類孟子1, 小學類韻書1.

史部(2)

政書類律令2.

子部(12)

儒家類6, 兵家類1, 醫家類5, 類書類1.

集部(17)

別集類 10, 總集類 7.

로 集部에 관한 圖書가 제일 많다.

일곱번째로 圖書가 刊行된 咸鏡道도 咸興을 비롯한 4個處에서 都畵19種으로 아주 圖書刊行이 不振하였다. 이는 그곳이 邊境地方이므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咸鏡道 各處에서 刊行된 圖書를 分類하면

經部(11)

禮類雜禮1, 孝經類1, 四書類大學1, 四書類中庸, 四書類論語1, 小學類字書1, 小學類韻書3, 小學類蒙求書2.

史部(2)

別史類1, 雜史類1.

子部(3)

儒家類1, 兵家類1, 道家類1.

集部(3)

別集類2, 總集類1.

로 他道와 다르게 經部가 제일 많다.

圖書刊行이 제일 적은 곳으로 나타난 곳은 京畿道로 水原에서 刊行된 2種뿐이다. 이곳은 忠清道와 마찬가지로 京師와 隣接하여 必要한 冊을 쉽게 구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圖書의 刊行이 不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水原에서 刊行된 2種의 圖書는 子部儒家類와 兵家類에 各各 1種씩이다.

以上에서 考察하여 본 바와 같이 地方板圖書는 各道마다 거의 共通된 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것은 子部에 관한 圖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集部와 經部이고 마지막이 史部이다. 子部에 관한 圖書가 많은 것은 그것이 地方의 日常生活과 關係的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集部와 經部에 관한 圖書가 그 다음인 것은 崇文思想과 佛敎儒敎思想이 各地方에도 많은 影響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史部에 관한 圖書가 제일 적은 것은 中央과 相反되는 現象으로 그것이 地方의 日常生活과 많은 關係가 없었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Ⅶ. 結 論

國學分野에 있어서 거의 研究가 되지 않은 壬亂以前 各地方의 文化事情을 攷事提要 冊板目錄을 통해서 概括的으로 究明하여 보았다. 그것에 의하면 圖書의 刊行이 頻繁한 곳이 文化水準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圖書의 刊行과 文化事情이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것은 示唆하는 것으로 東西古今에 있어서 거의 不變의 眞理인 것 같다.

壬亂以前에 있어서 圖書가 刊行된 次序를 道別로 살펴보면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平安道, 江原道, 忠清道, 咸鏡道의 順으로 黃海道 忠清道 및 京畿道만 除外하면 이것은 그 당시 文化水準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人材登用の 關門인 科學試驗에 있어서 及弟者의 地域割當數와도 거의 一致하는 것이다. 典籍에 의해서 나타난 各地方文化的 特色은 實用的이라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地方의 日常生活과 連關性이 많은 子部에 관한 圖書가 많고 中央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史部에 관한 圖書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當時에 中央이든지 地方이든지 어느 곳에 서나 緊密한 關連이 있는 集部와 經部에 관한 圖書가 그 中間이다. 이와같이 圖書의 刊行은 壬亂以前에 있어서 各地方의 文化事情과도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志, Vol. 11, 1970.
 金致雨. 啟事撮要의 書誌的 研究, 1972年度 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致雨. “우리나라에 있어서 書肆의 起原에 관한 研究”, 도서관, Vol. 28 No. 6, 1973. 6. pp. 63-69.
 東國大學校 圖書館. 古書目錄集成. 서울, 1962.
 三木榮. 朝鮮舊書誌. 孔版本. 大阪, 昭和 31 (1956)
 徐命應. 啟事新書, 印書體木活字本, 英組 47 (1771)
 釋尾春等. 朝鮮古書目錄. 京城. 明治 44 (1911)
 安春景. “坊刻本論攷”, 書誌學, No. 1, 1968.
 魚叔權. 啟事撮要. 乙亥字本. 宣祖 1 (1568)
 魚叔權. 啟事撮要. 乙亥字本. 宣祖 9 (1576)
 魚叔權. 啟事撮要. 乙亥字本覆刻本. 宣祖 9 (1576)
 魚叔權 撰, 許筠 續撰, 啟事撮要. 木板本. 宣祖 18 (1585)
 尹炳燾.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國會圖書館, 1969.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9.
 朴龍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續直解. 登未字本覆刻本. 錦山, 端宗 2 (1454)
 鄭亨恩. “書肆에 對한 몇가지 問題”, 書誌學 No. 2, 1969.
 朝鮮王朝實錄1—, 國史編纂委員會 編. 影印本. 서울, 4288— (1955—)
 千惠鳳. “국문본해제: 啟事撮要”, 도서관, Vol. 27 No. 8, 1972. 8
 黒田亮. 朝鮮舊書考. 東京, 昭和 15 (1959)

An Analysis of Korean Rural Culture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Based on the Publication Frequency of Books

Kim, Chi Woo ★

(Summary)

I examined closely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whole country based on woodblock for the books of the Kosachalyo. I meant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whole country which was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excluded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e woodblock for the books of the Kosachalyo collected the lists of 989 books of the whole country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t could not be exaggerated to say that the Kosachalyo is the whole list published in the country at that time.

According to the Kosachalyo the books were published in order of Gyeong-sangdo, Chulnado, Whanghaedo, Pyungando, Chungchungdo, Humkyungdo, and Jejudo. The result tells us that the phenomena of the order coincide with the degree of the cultural development at that time.

★ Instructor, Dept. of Library Science, Pusan Junior Vocational Women College.